

GRACE 선교소식

2026년 4월 GMI-GKC 선교사 현황: 58개국 301명 (자체파송 79%)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튀르키예에서 사랑의 불꽃 사역을 마치고 토요일에 스웨덴 예테보리 도시에 도착하여, 오후부터 스웨덴 은혜한인교회 제직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주일에는 스웨덴 은혜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이하여 임직식 예배와 성찬식을 드리며 큰 감격 가운데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36년 전, 고 김명자 선교사님과 이 광섭 장로님 부부께서 GMI 유럽 사랑의 불꽃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시며 '비디오 교회'로 시작하신 공동체입니다. 이후 유학생들과 주재원, 교포들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며,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아 온

교회입니다.

이번에 장로로 세움을 받으신 김근제 장로님께서 박사과정으로 오셔서 학위를 마치고 연구원으로 섬기시면서 30년 이상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오신 귀한 분입니다.

이번 임직을 통해 장로 1명, 안수집사 2명, 권사 2명, 서리집사 6명이 세워지며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사랑의 불꽃 사역과 스웨덴 은혜교회 임직식 예배를 인도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령께서 필요한 은혜를 정확하게 부여하시고 풍성히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에서 모인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팀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매우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한 성령, 같은 사랑의 불꽃 영성으로 연합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로고인 민들레처럼 선교 사역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것을 보며 주님께 감사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제직 세미나: 5/2
- 그룹장 모임: 5/5
- 창립 44주년 부흥성회: 5/14-5/15
- 창립 44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5/17
- 목자 수련회: 5/25

목사님의 사역 일정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 숨바섬으로 인카운터 사역을 위해 한국 GMI 은혜교회 팀과 미국 팀이 연합하여 단기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큰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

16기 훈련

기도와 후원해주셔서 16기 훈련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9일 입학식에 김영진 사모님과 GMI 은혜교회 정태호 목사님, 그리고 선교사 훈련원 권역 담당이신 김민성 장로님 외 여러 분들이 오셔서 축복해주셨고, 지난 주 내적 치유, 선교사의 재정 훈련, 그리고 손경민 목사의 찬양 집회까지 은혜롭게 7주차 훈련을 마치며 이제 한국 훈련의 반을 달려왔습니다.

16기 단기선교 실습을 5월 4일-15일까지, 이



스라엘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중동 지역의 전쟁 상태로, 텔아비브 공항이 일방 방문 여객에 대해서는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 금년 이스라엘에서의 단기 선교 실습은 부득이 포기하게 되어 성경 통독과 다른 강의 및 훈련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16기는 현재 7가정, 11명; 김형찬, 박춘근, 황안나, 유상준, 에스더 지, 이호진, 장새힘, 송은혜, 정새나, 최종섭, 박희정 후보생들은 선교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에 LA에서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국

고00 / 이00 선교사

J국과 중동의 긴장감

중동전쟁이 한달째 이어가면서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는 이곳에서 주님의 때를 준비합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실감하며 아랍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더욱 깊이 느낍니다.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경제적 손실과 피해만 말할 뿐 주님의 가치 손실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의 전부를 바꾸어 구원할 영혼임을 기억해 주시고 복음으로 구원받길 기도해 주세요. 무슬림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무슬림들을 섬깁니다.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의 안타까움보다 하나님의 더 안타까워하심을 느낍니다.

사진속 두 자매는 시리아에서 태어나 전쟁으로 J국에 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이혼의 경험을 한 두 자매를 섬기며 헤어짐의 아픔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새신앙되신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야스민과 마리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꿈의 학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4

중동의 아랍영혼 무슬림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시리아 난민 학교 아이들은 이 전쟁 중에도 꿈의 학교에 나와서 공부합니다. 아이들이 간식(음료와 빵)을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이 이들에게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섬깁니다. 섬기는 저희에게 더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채워 주시길 기도해 주세요.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3월의 제니짜의 분위기

날씨가 따뜻해질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날들이 쌀쌀했습니다. 라마단의 기간이 정확히 3월 중순에 끝이 나서 거리는 따뜻한 날씨로 도시는 활기찰 줄 알았는데 2월 초부터 시작된 도로공사로 인해서 벤치가 사라지고 날씨는 결국 3월 27일부터 눈이 다시 내리고 비가 연속으로 오는 바람에 거리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봄이긴 한데 뭔가 어정쩡한 봄이라고 할까!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니짜에 존재하는 보스니아 최대 철강산업 공장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회사가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을 해서 제니짜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해외로 가려 할 것이고 지역 경제는 더 힘들어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것이 3월에 제가 느낀 제니짜의 분위기입니다.

보스니아의 교회

서로 협력어 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슬람, 카톨릭, 정교회 그리고 유대교가 존재하는

나라이고 개신교의 비율이 1퍼센트도 안되기에 목사들 간의 단합이 안됩니다. 개신교의 세력이 너무나 미약하고 교회는 있지만 보스니아 현지 성도들이 너무나 적기에 목사님들이 무엇인가를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임을 보게 됩니다. 제니짜의 경우 이슬람 사원은 20개 이상 존재하지만 개신교회는 제가 섬기는교회 한 곳, 늘 예배에 나오는 성도는 목사님 가정과 저를 포함해서 7명 정도.

다리오 목사님을 보면서 늘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30년 이상을 제니짜에서 목회를 해오시고 성도의 부재로 지치고 힘드셨을 것이 분명한데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유지해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선교사로서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목사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때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도 겪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존재하고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부흥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하나님 때에 저를 통해 구원을 얻을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라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선교사가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현지 목사님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고 같이 현지 목사님과 복음을 증거하고 세워 나갈 수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이들과 친구가 되어 가면서 천천히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음을 시간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과 이야기를 해도 저와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조바심을 버리고 차곡차곡 서두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어

늘 꾸준히 합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문화적으로 힘들거나 이곳 사람들이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곳 현지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서 이겠지요. 어느 정도 말이 되면 감옥 사역을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때가 있겠지요. 서두르지 않으려고요!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구요!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었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들지만 언어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스

신동덕 / 신미희 선교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은 복음이 흘러가기 위해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교회가 탄생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의 불꽃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영혼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불지는 복음의 불꽃이 피워지는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2015년 터키로 파송되었다가 2019년도 1월 그리스 아테네로 사역지를 옮기고 난민을 위한 사랑의 불꽃 1기를 그 해 4월에 개최하였습니다. 김광신목사님을 Spiritual Leader로 모시고 52명의 중동 난민들을 섬기기 위해 74명의 팀멤버들이 미국, 한국, 독일에서 특히 터키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복음 접화에 불을 지피었습니다.

사랑의 불꽃 이후 난민들 가운데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신학생들을 모집, 2020년 초 3명을 후원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해 가을학기에는 3명을 더 후원하여 총 6명이 신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10명이 신학교에 다니는 정도도 있었습니다. 후원한지 5년이 지나 드디어 2025년 3명의 이란 난민신학생이 졸업하게 되었고 현재 2026년 4명의 신학생(이란, 아프가니스탄)이 GMU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졸업한 터키 Krikale에 있는 이란부부가 2025년에 강도사 시험을 통과하고 지난 4월 17일(금) 이스탄불 Tres Dias에서 한기홍목사님으로부터 목사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신학교 수업 가운데 하나인 "Cells & Church Planting"을 실제로 집에서 3-4명과 함께 접목시킨 것이 오늘날 50-60명이 출석하는 난민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 시작하지 얼마 안돼 남편은 간에 심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간이식 수술을 받기위해 병원침실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이 될 때까지 신학교를 휴학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했지만 그는 병원



침대에서 1년이 넘도록 신학공부를 지속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병실에서 그를 간호하며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는 난민이기 때문에 터키 병원에서 피를 제공받지 못해 그의 교회 성도들이 2시간 떨어져 있는 양카라까지 가서 그를 위해 헌혈했습니다. 그가 수술이 필요할 때마다... 수술비용은 달러로 5만불이 훨씬 넘었지만 난민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수술이 끝나기 전에 그 돈은 모아졌습니다. 일부는 무슬림인 병원 닥터도 참여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불꽃은 불을 피우고자 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성령님은 함께 일하시며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19세기 후반 이후, 미국과 유럽의 개신교 단체들 선교활동으로 1979년 이후부터 개종자들이 지하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강한 이슬람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개종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고립은 물론 가족의 보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교활동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문이 열려 귀한 난민들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가족 및 지역 주민들 사이에 즉각적인 신뢰와 믿음을 얻을 수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와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더 빠른 복음 확산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목사안수를 받은 이란부부는 이란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의 꽃을 피우고자하는 소망으로 기다림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터키 사랑의 불꽃(MEGL)은 이제 16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번에 65명

의 캔디들이 15 여러 국가인 중동에서, 동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모였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이례없이 많은 국가의 민족들이 이스탄불 TD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스탄불이 새롭게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럽과 중동 그리고 LA, 한국을 잇는 허브역할로, 소통으로는 영어를 중심으로 사용되어짐이 따라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의 불꽃이 한꺼번에 전해지는 사랑의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내년에는 EM이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더 많은 민족이 이스탄불에 모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끊임기게 수고해주신 팀멤버들의 사랑의 열매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 드립니다.



N국

김OO / 오OO 선교사

SPBA BIBLE COLLEGE 졸업식

2026년 3월 30일 SPBA BIBLE COLLEGE 9회 졸업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당회장 한기홍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N국 극서쪽은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 복음화가 매우 미약한 지역입니다. 기독교 핍박이 가장 심한 지역이기도 하지

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세우셨고 졸업한 학생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신학과 성경 그리고 computer, music(음악 이론, 기타, 키보드), beauty palor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셨는데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교역사를 보면 가난하고 노예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로 흩어져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되었지요. 선교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을 요구합니다. 나라가 가난해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PBA BIBLE COLLEGE가 주 안에서 더욱 새롭게 변화되고 세계를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태국

김인기 / 박춘희 선교사

교회개척 과정 (부르심과 순종)

나계 교회 (2015년 개척, 나콘파놈도 나계군 소재): 처음 개척된 교회로, 센터교회 역할을 하며 완공된 예배당이 있습니다. 지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교인들을 파송하고 있어서 일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20여 명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모교회 역할을 든든히 해내고 있는 강소형 교회입니다.

간르양 교회 (2017년 개척, 나콘파놈도 나계군 간르양면 소재): 두 번째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나계교회에서 분리 독립된 교회입니다. 건축된 예배당이 있고, 왕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편이며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현재 약 400여 명(아이들 포함)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팔락 교회 (2018년 개척, 나콘파놈도 타파놈군 소재): 태국에서도 유명한 불교 성지입니다. 그만큼 영적 불모지입니다. 현재 100명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최근 관련된 은혜로운 간증이 있어서 나눕니다. 작년 2025년 10월에 팔락교회 성도 부부가 자신의 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동안 팔락교회는 작은 임대건물과 임대료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부의 귀한 헌신으로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소유의 건물이 되었고, 임대료도 매월 지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집이어서 너무 낡고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따라 리모델링해 나가는 중입니다. 교회 건물 리모델링이 마무리 될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2023년 개척, 나콘파놈도 도청소재지): 개척 후 1년 반 동안 교인이 없이 저와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많이 애태웠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 전부터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현재 100명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선교지 지역교회들도 고령화 추세). 임대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사역으로 남/여 대학생 기숙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는 교회 건물 내부에 이미 운영 중입니다. 남여가 한 건물에 있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남학생 기숙사를 외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농송 교회 (2024년 개척, 목다한도 농송군 소재) 기존교회들은 저와 아내가 직접 개척을 했는데, 농송교회는 다르게 개척되었습니다.

센터교회인 '나계교회'의 성도 부부를 고향에 파송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직 세례교인은 없지만, 7명 정도(관심자)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임대교회이며, 무엇보다 거듭난 첫 성도 한 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곡씨수판 교회 (2026년 6월 개척 예정, 싸콘나콘도 곡씨수판군 소재): 이곳은 무교회 지역입니다. 현재 임대계약을 해 놓은 상태이며, 5월부터 내부 수리를 하고, 6월부터 예배를 드



릴 계획입니다. 개척 방식은 기존과는 조금 다르게 나계교회와 간르양교회 정예 멤버들과 함께 개척하려고 합니다. 내부 인테리어 등을 감당할 예산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53 크리스찬학교 (유·초·중·고등학교)

현재 크리스찬 자녀들이 불교학교에 가서 매일 아침, 오후로 불공 드리는 자리에 참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모든 학교가 정기적인 불교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크리스찬 학부모들은 자녀를 결석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학교 사역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사역입니다. 그만큼 큰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사역입니다. 현재 학교 부지(2,000평)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속히 건축할 예산이 마련되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탄자니아

오판석 / 정미라 선교사

땅보다는 하늘로부터

작년 11월부터 기다리던 노동허가(working permit)가 올해 1월경에야 나오게 되어 약 3개월의 떠돌이 한국 살이를 마치고 2월 24일에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섬에 입국했습니다.

현지 탄자니아 친구도, 동료 선교사님들도 가장 강조한 것이 집을 고를 때 우선 안전한 곳인지 그리고 야간 경비원을 두는 것은 필수라고 해서 약간 긴장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들어가는 시점에 두 가정의 선교사님들이 거주하시고 사역하시는 센터에 집이 하나 비어 있어서 그 집을 렌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차량이 없고 위치가 굉장히 외곽 시골지역이여서 저희를 초청하신 선교사님 가정이 차량으로 도와주지 않으시면 장을 보거나 집에 필요한 물건도 당장 구하기 쉽지 않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인 안전 문제가 해결된 것이 무척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프리카에 오니 모든 것이 느릿느릿 흘러갑니다. 한국에서는 시가 가져올 초고속 변화를 걱정하는 말들을 어디를 가든 화두로 접했지만, 잔지바르는 아직 종이와 귀하고 비싸며, 인쇄할 곳조차 찾기 힘들어 종이에 손수 상황판과 표를 그리고, 그 위에 투명비닐을 덮고 테이블로 고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며칠 만에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저희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느리게 흐르다하여서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은 초고속으로 소모됩니다. 컴퓨터와 인쇄기가 몇 분이면 할 일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일일이 재료를 구하러 여기 저기를 다녀야 하고,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특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시내에서 멀고 전기가 매일 한번 5-6시간은 나가니 2-3배의 시간이 아니라 5-6배의 시간이 더 드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생존이 문제인 곳입니다. 수십년의 시간을 갑자기 거꾸로 되돌아간 듯합니다. 빗물통의 구멍을 메우고 고치고 확인하는 데에만 실제로 3주라는 시간이 소모됐습니다. 지하수는 석회수가 너무 심해서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할 수 없기에 비 올 때 받은 빗물로 사용합니다. 들어온 지 하루만에 이 빗물통이 새어서 그것을 땀질하기 위해서 남은 빗

물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이 빗물을 한국에서 사온 정수기에 2번 정수해서 마시는 물과 요리에 사용하는데 물이 새면 긴 건기를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월부터 우기가 시작되어 5월까지 지속되는데 저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 빠지게 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물이 갑자기 사라지다시피 하니 좋은 것은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말씀이 아프리카에 오니 절절히 마음에 다가옵니다.

너무 더워 하루에 보통 3-4번 샤워를 하는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석회수로 인해 머리카락은 뽁뽁하게 되고 아내가 한국에서 예쁘게 해온 파마는 이미 언제 했는지 무색할 만큼 덜수록하게 변했고, 안그래도 부족한 저희의 머리카락들은 점점 정든 집을 떠나버리는 슬픈 경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머리도 아주 짧고 부족한 것을 보며 위안을 삼습니다.

비자 과정과 스와힐리어

비자 신청 과정이 어렵고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이번 2년은 노동허가는 저만 받고 정 선교사는 우선 동반 가족 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우선 사역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슬람의 인구가 98%이다 보니 기독교의 전도 활동을 항상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우선 비자가 순적히 나와서 사역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는 탄자니아가 첫 선교지로 1993년에 2년 동안 체류했는데 놀라게도 아직도 그때 3개월 배웠던 스와힐리어를 많이 기억하고 기본 소통이 가능한 상태여서 어딜 가나 저의 개인 통역사로 무료 봉사합니다. 저도 첫 걸음마를 떼고 있습니다. 잔지바르에서는 스와힐리어가 되어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생활이 가능하기에 언어의 진보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주세요.

노아 학교와 에버그린 학교

지금 머물고 있는 저희 집 옆 담을 넘으면 노아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비자를 에버그린 학교에서 받을 수 없어서 센터의 책임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노아 학교를 통해 비자를 해결하게 되었기에, 에버그린 학교와 MOU를 맺어 두 학교에서 사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탄자니아의 학교 새학기는 1월에 시작하기에, 에버그린 학교는 지난 1월부터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지만 새롭게 건축한 새장소에서 학기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공사는 한참 진



행 중입니다. 아프리카의 상황은 보면 볼수록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교실의 책상과 의자는 허술하기 짝이 없고, 칠판은 벽에 검정색 페인트 칠만 해놓고 사용하는데 지켜보면 한국도 이런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인쇄할 종지와 잉크가 비싸고 귀해서 도서관이라는 곳엔 최소한 30-40년은 되어 보이는 최신 교과서들 정도만 비치되어 있어 황량하기까지 하고, 교무실에는 서로 높낮이와 모양이 다른 테이블 3개만 덩그러니 서로 연결해서 15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둘러 앉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학교에는 유치원생부터 중 1학년생까지 올해 현재 580여명이 등록했다고 하는데 화장실은 남자용 5개와 여자용 5개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현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은 이전과 비교하면 눈물겨운 변화요 은혜라고 너무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를 가르치는 학교'라고 주위에서 무슬림 학부모들이 다른 학부모들을 자극해 자녀들을 이슬람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사람들을 자극해서 약 40여명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두 다시 에버그린 학교로 돌아왔는데 이유는 에버그린 학교 교육을 경험한 학생들이 다른 이슬람 학교를 경험하고 울며 불며 부모님들에게 다시 에버그린 학교로 돌려 보내 달라고 간청을 해서 모두 돌아왔다고 합니다. 기도하기는 이 에버그린 학교를 통해 믿음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교육의 우수성과 차이점이 복음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아이들

저희가 한국을 떠나기 며칠 전에 시온이는 네덜란드의 엔스헤데로 출국해서 현재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시몬이도 입학식을 거쳐 새학기를 시작했는데 재미있다고 하니 그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두 아이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1국

이00 / 이00 선교사

다시 1국으로 복귀하다

저희는 2월 중순에 급하게 심장치료를 위해 한국에 나갔다가 전쟁으로 인하여 중동지역 항공로가 폐쇄되어 언제 다시 1국으로 들어가야 될지 고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은 제가 그동안 1국에 있으면서 겪었던 전쟁보다 인명 피해가 많았고 날라오는 미사일 또한 파괴 규모나 횡수가 강력하고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쟁 기간에는 많은 현지인들과 외국인들이 전쟁을 피해 1국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 J도시 미션 센터에 있던 저희 EM에서 파송된 멤버들도 모두 떠나, 센터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던 중에 빨리 1국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유대인에게 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저희는 이집트 육로로 가는 비행기표와 차량을 바로 예약했습니다 (한국→몽골→이stanbul→이집트→1국 남부 국경→J도시). 여기에 더 많은 재정이 지출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출발하기 직전에 채워 주시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어려움이 있었는데 새로 처방받은 약의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증상이 생기었습니다. 약의 주의사항에는, 운전도 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오랜 여정에 어지러움 증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1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전혀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J도시 도착 후 미션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유



대인과 우리 EM에서 파송되었던 멤버로 가득 채워져야 할 미션 센터가 텅 비어 있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탄들이 저희를 비웃고, 조롱하는 느낌을 저와 아내가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제 센터에 아무도 없다. 너의 사탄디너 사역이 없어졌다” 그러나 저희는 오히려 사탄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EM에서 파송된 멤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1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서울에 있는 GMI 은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많이 부어 주실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번 주부터 사탄디너 사역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나눌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역소식

최근 1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변화입니다. 저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전통 유대인들과 전통 유대주의에서 나온 유대인 (ex- orthodox)들 입니다. Ex-orthodox 들은 매주 금요일에 저희 센터에서 섬기는 안식일 디너에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 매일 여러명으로부터 언제 돌아올 거냐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저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제 이들과 한 가족처럼 지냄을 넘어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년간 친구로 교제해온, 전통 유대인 여인의 변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최근 이00 선교사와 교제하는 친구들 중 전통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유대인 S와는 많은 종교적인 대화를 했었고 복음도 전하였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친구였는데, 얼마전 이00 선교사를 점심에 초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는 고백으로 하며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S삶에 실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접기도를 하다.

(안식일 디너에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

저희 안식일 디너에 오는 자매 T는 최근 질병과 가족으로 받은 상처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딸과 함께 오는데 몸이 아파 오지 않으려 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식일 디너에 가라’라는 음성을 여러 번 듣고 아픈 몸을 끌고 안식일 디너에 왔습니다. 그날 이00 선교사가 기도해 주면서 많은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영접기도를 하였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T 자매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알게 하실거라 믿습니다.

히브리권 TD 1기 계획

올해 11월에는 1국 티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80명의 캔디데이트가 모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티디를 통해 J도시에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기도와 물질로 섬겨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1국을 주님께 돌아올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송좌한 / 김정희 선교사

지난 3월은 GMI 아시아선교대회(1주간, 베트남)와 GMS 선교사 일본특별훈련(3주간, 이바라키현)으로 무척 바빴지만 새로운 만남과 사역의 기틀을 놓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여러 선교팀과 한국의 목사님들이 다녀가셨고, 중소교회부흥을 위한 전도특강도 진행되어 일본선교에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3월 졸업예배에는 2명의 졸업생(대학, 소학교)이 있었고, 지난 주에 유초등부는 달란트 잔치로 풍성한 나눔을 가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청년부는 청년헌신예배와 1박2일 수련회, 동맹교단 연합예배를 통해 은혜받았

고,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속에 하나되어 주의 선한일에 힘쓰기를 다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희의 부르심을 재확인하고,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구체화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청지기로서의 겸손과 순종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열정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멕시코 임한곤 / 이길선 선교사

1. 멕시코가 하루 속히 치안안전과 교통안전이 확보되어 일상을 되찾도록
2. 산타페 교회의 오텔로 사무디 담임목사, 호르헤 전도사(청소년부 담당)와 까렌 전도사(영, 유아부 담당)가 말씀충만과 성령충만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3. 까미노신학교에서의 주임교수직과 베델신학교연맹에서의 교환교수직을 통해서 훌륭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많이 양성해 내도록
4. 다가오는 5월 2일에 있을 신학교졸업식을 위해서, 졸업하게 되는 32명의 졸업생들이 국내 목회지와 해외 선교지와 잘 연결되도록
5. 월드컵 개최 열기가 다시 일어나고, 개신교연합전도대회 전도대원들도 월드컵기간 동안에 활발하게 전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탄자니아 오판석 / 정미라 선교사

1. 주님과 의 임마누엘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을 잘 구별해 따라갈 수 있도록
2. 우리 부부와 송규영 선교사님 부부의 영적 육체적 건강과 우리 부부의 스와힐리 언어 습득에 큰 진보가 있도록
3. 저희의 건강함과 건강함을 위해, 정미라 선교사가 감기를 심하게 앓고나서 말라리아 테스트를 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아위었는데 잘 회복하도록
4. 현재 신청한 비자가 나오길. 그리고 에버그린 학교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5. 에버그린학교 선생님을 잘 이끌고 주님께서 주시는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고 잘 제시할 수 있도록
6. 시몬이의 네덜란드에서의 박사과정과 시몬이의 서울에서의 대학과정에서 주님과 홀로서기를 잘 할 수 있도록

J국 고OO / 이OO 선교사

1. 무슬림 영혼의 구원의 소망과 인내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2. 전쟁가운데 있는 이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인정되어지기를
3. 난민사역(난민학교, 가정방문, 교회개척)에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4.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심판받고 아버지의 생명 안에 사는 삶을 살도록
5. 가족의 구원과 홀로 계시는 부모님의 삶과 건강(이순화 선교사 어머니 위암 투병 중)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캄보디아 안진호 / 안지연 선교사

1. 성전 건축이 무사히 잘 마칠수 있도록
2. 안진호 선교사가 풍토병으로 건강이 안 좋는데 잘 회복이 되도록
3. 안지연 선교사가 소변에서 피가 많이 나오는데 하루 빨리 멈추고 건강회복 되도록
4. 4월 5월은 날씨가 130도가 넘어가는데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하도록

N국 김OO / 오OO 선교사

1. 바이블 칼리지 기숙사 완공을 위한 물질 후원을 위해
2. 8월에 신실한 신입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3. 농업 비자가 잘 진행되어 발급받을 수 있도록
4.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과 치유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5. 세계 각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1. 공간 임대
2. 언어의 성장
3. 언어가 성장하여 감옥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미국 이OO / 정 O 선교사

1. H언어 TD 캔디데이트 80명을 위해
2. 안식일 디너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3. EM에서 파송된 형제 자매와 귀한 동역과 영적성장을 위해서
3. 이OO 선교사의 심장건강과 부부의 건강
4. 비자 해결과 안전을 위해



캄보디아 김영대 / 조정아 선교사

1. 29호 새소망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 되게 하소서(고환율과 유가폭등으로 자재비 폭등)
2. 방과후 교실과 Light&Salt 장학생을 통하여 다음 세대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3. 캄장신 신학생들이 마지막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하소서
4. 올네이션학교를 섬기는 조정아 선교사와 모든 교사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명문학교가 되게 하소서
5. 저희 가족들과 동역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성령의 날개 아래 지켜 주옵소서

일본 송좌한 / 김정희 선교사

1. 특별새벽예배(매월 첫주)에 말씀의 능력을 위해
2. 부활절 행사가 은혜가 충만, 순조로운 진행 위해
3. 청년부에 새로 온 태헌 형제의 신앙과 정착 위해
4. 소우고 청년이 4월 출근하는 첫 직장 적응을 위해
5. 장거리 출석(3시간)하는 수빈이의 신앙을 위해
6. 중고등부를 지도하는 Xin상의 열정을 위해
7. 한글학교, 홈리스 사역에 돕는 손길 더하시도록
8. 중고청 연합예배(4/26), 전교인 आयु예배(4/29)
9. 교회연합부흥성회(5/4~6)에 성령님의 역사 위해
10. 일본어학교 새학기 등록과 공부 지속을 위해
11. 주파송교회를 순전히 만날 수 있도록
12.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말씀묵상과 부흥
13. 노방전도사역 준비와 문화센터 준비를 위해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칠레 AFA #1 Next Generation (5/26-6/2)
S/L: 안영식 목사
렉터: 장준영 장로
문의: 차윤석 집사 (714-334-2340)
- 동유럽 Romania Local Church G/E & VBS (6/2-6/9)
디렉터: 권혁석 장로
문의: Steve 어 안수집사 (714-318-8549)
- 케냐 인카운터 1기 (6/21-6/30)
S/L: 설성훈 목사
디렉터: 백준승 장로
문의: 로이김 집사 (213-999-1737)
T/M : 5/12, 7PM, VC108

- 필리핀 Grace camp & 개척선교 (6/23-6/27)
S/L: 김홍권 목사
리더: 이창석 집사 (213-598-8845)
- 콜롬비아 AFA 6기
S/L: 송종호 목사
렉터: 최은용 집사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O/T: 4/30, 7PM, VC119
- 몽골TD 2기
S/L: 한기홍 목사
렉터: 스카이박 장로
문의: 이한철 집사 (858-335-9415)
O/T: 4/30(목) 6:30pm VC119호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쥬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